

圓覺寺 所藏 『楞嚴經』 卷1 講讀

허인영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0. 강독에 들어가기 전에

- 구결은 넓게 보면 글을 읽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한 장치인 글로싱(glossing)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Whitman 2011).
- 글로싱에는 번역에 가까운 것부터 어휘의 의미, 구두, 인명부 등 읽기에 보조적인 정보를 추가하는 것까지 상당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음.
- 구결의 정의: 좁은 의미로는 한문 원문에 부가된 토(주로 기능어)만을 가리키고, 넓은 의미로는 한문에 토가 달린 결과물을 읽는 방법까지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음.
- 우리가 읽는 자료는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강독에 들어갈 필요가 있음.

1. 구결의 종류¹⁾

1) 독법(어순)에 따라 - 음독/석독

음독(송독/순독)구결: 한문을 한자음대로 읽고 한문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며, 구·절 위치에 토만을 붙여서 한문의 어순으로 읽는 방식.

석독(훈독/역독)구결: 한문을 한국어로 해석하여 한국어에 맞게 한문의 구조를 바꾸어 읽는 방식.

2) 기호에 따라 - 문자/부호

문자(자토)구결: 문자로 베껴어진 토.

차자구결: 정체구결, 약체구결

한글구결

부호(점토·부점·점선)구결: 점이나 선의 형태로 이루어진 토.

3) 수단에 따라 - 기입/인쇄

기입구결: 이미 존재하는 한문의 여백에 기입하는 것. 주로 약체차자구결.

각필구결

모필구결: 목필구결, 주필구결, 남필구결

인쇄구결: 책을 간행할 때 구결을 세주처럼 소자로 인쇄한 것.

1) 이하의 분류는 鄭在永·安大鉉(2018)에 따른 것이다.

판각구결, 활자구결

2. 우리가 읽을 자료는 어디에 속하는가?

1) 정말로 ‘석독구결’인가?

『능엄경』(원각사본)은 ①한문 원문에 차자로 된 음독구결을 달았고[음독-약체차자-기입구결], ②동일한 원문의 한자 옆에 해당하는 어형을 한글로 기입하거나[훈독-한글-기입구결] 차자로 된 석독구결을 달았고[훈독-약체차자-기입구결] ③‘.’, ‘一二三四’ 등 한문을 해독하는 어순을 표시하는 부호를 달았다.

②와 ③을 고려하면 한문을 한국어로 해석하여 한국어의 구조에 맞게 한문의 구조를 바꾸어 읽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석독(훈독·역독)구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張景俊(2021: 152-155)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자료에 대하여 ‘훈독표시구결(訓讀表示口訣)’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까지 널리 ‘석독구결’로 알려져 온 고려시대의 것과 같은 종류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2) 고려시대의 ‘석독구결’과 동일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시대의 ‘석독구결’은 ①한문 원문에 약체차자 또는 부호 구결토를 기입하여 ②한문을 우리말로 풀어 읽은 것으로, 그 자체로 완결된 한국어 번역문을 이룬다. ③오랜 전통을 지니며 종파에 따라 구결토의 종류나 용법, 점도 체계가 다르다.

한편 우리가 읽을 『능엄경』(원각사본)은 한문 원문에 약체차자 구결토를 기입했다는 점에서는 고려시대의 자토석독구결과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음독구결의 토를 이용하지 않으면 한국어로 읽을 수 없으므로 그 자체로 완결된 한국어 번역문을 이룬다고 하기 어렵고, 오랫동안 지속되며 종파에 따라 체계가 달랐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석독구결’과 완전히 동일한 유형의 구결자료로 취급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자료가 한국어를 풀어 읽었다고 생각되는 근거 중 하나는 어순표시부호인데, 어순표시부호가 있는 곳에 한글 표기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없는 경우도 있고, 한글 표기는 있지만 어순표시부호가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어순표시부호의 존재가 반드시 한국어로 풀어 읽었음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²⁾ 또한 이 자료에는 특히 음독구결에서 원래 기입되어 있던 구결자를 지우고 새로 기입한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언해를 참고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변개일 가능성이 있다.

“석독구결에 의한 한문훈독이 행해지지 않게 되고 음독에 의한 음독구결이 주류가 된 15~17세기에 나타난 훈독표시구결의 기원이 무엇인지는 아직 해명되지 않았다. 10세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한 것이 고려시대에도 부분적으로 명맥을 유지하여 15세기 언해의 등장과 함께 다시 활성화된 것인지, 아니면 일본 훈점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앞으로의 조사와 연구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張景俊 2021: 155)

2) 이와 관련해서는 張景俊(2021: 154)에서도 이른바 훈독표시구결에서 어순을 나타내기 위해 ‘一二三四’나 ‘ㅇㅇ’가 쓰이는 사실을 언급하고,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어순표시부호(일본에서는 어순부라고 한다)가 고려시대의 석독구결의 어순표시 방법과는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일본의 훈점과 유사하다는 사실일 것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3) 한글 토가 기입된 시기는?

현재로서는 한글 토가 기입된 시기를 알 수 없고 한글의 자형이나 표기 등의 일부 측면에서 아주 후대의 것은 아닐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어 있을 뿐이다. 최근 정은영(2021)에서는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능엄경』의 한글 토를 검토하였는데, 병서 표기 등을 여타 한글 문헌과 비교한 결과 16세기 이후~17세기에 기입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 자료 또한 한글 토 전체의 표기를 『능엄경언해』의 표기와 비교하여 선후 관계를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한글 토가 언해본을 참고하여 적은 것인지, 아니면 한문을 한국어로 풀어 읽는 과정에서 한글을 이용했을 뿐인지에 대해서도 보다 진전된 견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일러두기>

A: 원각사본 능엄경 음독구결

B: 목판본 능엄경언해 한글구결

C: 원각사본 능엄경 석독구결

{ } : 한글로 뜻이 기입되어 있는 부독자

[] : 음독구결

< > : 세필로 원문에 한자를 보충한 경우

예



C': 원각사본 능엄경 한글협주

D: 목판본 능엄경언해 언해문

E: 현대어역

首楞嚴經要解序

前住福州上生禪院嗣祖沙門 及南 撰

A: 像季已還 3) 道術 〰 既裂 〰 3

B: 像季已還에 道術이 既裂하야

C: 像季4) ㄹ 已還5) [3] 道術6) [〰] 既7) {裂} ㄸ야디여

C': 像季已還 【如來 滅度하신 後에 正法 像法이 各各 一千年이오 末法 一萬年이니 像은 ㄸ
죽홀 시8)니 부더9) 겨신 적과 ㄸ죽홀 시라10) 季는 末이라】D: 像季릇 오매 【如來 滅度하신 後에 正法 像法이 各各 一千年이오 末法이 一萬年이니 像
은 ㄸ죽홀 씨니 부터 겨신 적과 ㄸ죽홀 씨라 季는 末이라】 道術이 ㅎ마 ㄸ야디여 【術
은 法이라】E: 상법·말법으로부터 【如來께서 滅度하신 뒤에 正法·像法이 각각 1천년이고 末法이 1만년
이다. 像은 비슷한 것이니 부처님 계신 적과 비슷한 것이다. 季는 끝[末]이다.】 道(불
도)와 術(불법)이 이미 찢어져 【術은 法이다】

－ 문현수(2016: 92)에서는 중세한국어에서 ‘-릇’은 체언:용언 수식의 예가 41:4, ‘-록’은 체언:용언 수식의 예가 11:7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像季릇 오매’는 ‘-릇’의 드문 예에 해당한다.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자토 ‘-ㄹ ㄹ’이 용언을 수식하는 예가 <금광명경>에 한 번 나타날 뿐이며, 대응하는 점토는 ‘-ㄹ ㄹ’에 해당하는 구결점이 달려 있다.

3) ‘3’ 밑에 기입되어 있는 ‘〰’에 종이를 붙여 지운 듯하다. <일사> ㄸ

4) 像의 오른쪽에 ‘似’, 季의 오른쪽에 ‘末’이라는 주석이 있다.

5) 還의 아래에 난상의 주석이 들어갈 위치를 표시하는 圈點이 있다. <BnF> 오매

6) 術의 오른쪽에 ‘法也’라는 주석이 있다.

7) <BnF> 마

8) 원각사본에는 각자병서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능엄경언해와 차이가 있다.

9) ‘부더’는 ‘부터’의 誤字이다.

10) 원래 적힌 글자 위에 ‘라’를 적은 종이를 잘라 붙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여 문현수(2016)에서는 전반적으로 ‘-룩’이 ‘-룻’보다 고품이며, ‘-룻’은 ‘-ㅁㅂ’의 ‘ㅂ’이 속격조사 ‘ㅈ’으로 재분석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한 바 있다.

- 언해문의 ‘오매’의 ‘애’에 해당하는 요소로 ‘ㅅ ㅅ’를 적었다가 ‘ㅅ’를 지운 것처럼 보인다. 후대로 가면 ‘ㄹ’나 ‘ㅈ’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여기에는 일단 구결 표기의 보수성이 작용하였을 것이고, 단모음화 이전 ‘애’(또는 ‘에’)는 하향이중모음이었기 때문에 ‘아’로도 충분히 대표할 수 있었을 것이다.
- 언해문 협주의 ‘-ㄹ 시’ 표기에 각자병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시사하는 점: 중세어에서 ‘관형형어미+평장애음’의 표기는 ①ㅅ+자음자(ㅅ 시), ②ㄹ+각자병서자(ㄹ 씨), ③ㄹ+자음자(ㄹ 시)와 같은 구성이 쓰이다가 ③쪽으로 통일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이 자료의 한글 토 표기는 『능엄경언해』 이후의 것일 가능성도 있다.

A: 明心之士 妄認緣塵 爲物 所轉

B: 明心之士 | 妄認緣塵 ㄱ야 爲物의 所轉 ㄱ며

C: 心¹¹⁾ 明¹²⁾ {之}士¹²⁾ {妄}거즈리 緣塵 認[ㅅ ㅅ] 物[ㄹ] 所轉 未 {爲¹³⁾}ㄷ[ㅅ ㅅ]¹⁴⁾

C': 緣塵 【緣은 브틀 시오 塵은 드트리라】

D: ㅁ슴 불깊 사르미 거즈리 緣塵 【緣은 브틀 씨오 塵은 드트리라】 을 아라 物의 ㄹ교미 ㄷ외며

E: 마음을 밝히는 사람이 망령되게 緣塵 【緣은 의지하는 것이고 塵은 먼지이다】 을 알아 物의 ㄹ교미 ㄷ외며

- ㅁ슴 불깊 사름: 선정은 있고 지혜는 없는 사람.

- ‘明길’은 ‘불길’로 언해문의 ‘불깊’과 불일치. 여린히움이 쓰이지 않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 義學之徒 虛驕多聞 不全道力

B: 義學之徒 | 虛驕多聞 ㄱ야 不全道力 ㄱ야

C: 義¹⁶⁾ 學¹⁷⁾ ㅈ 1 {之}徒[ㅅ ㅅ] 多¹⁸⁾ 聞¹⁹⁾ {虛}속절업시 {驕}잘카냥[ㅅ ㅅ] 道力 ㄷ²⁰⁾ 全 ㅈ {不}문[ㅅ ㅅ]²¹⁾

C': 義學之徒 【義學之徒 1 글월 뜯썬 비호논 사르미라²²⁾】

11) 心の 오른쪽에 ‘有定无惠’라는 주석이 있다.

12) 士の 오른쪽에 ‘人’이라는 주석이 있다.

13) <BnF> ‘爲’의 오른쪽에 ‘ㅈ?’, 왼쪽 아래에 ‘?’.

14) 明心之妄認緣塵

15) ‘ㅅ ㅅ’ 오른쪽에 3글자 정도 구결자를 적었다가 지운 흔적이 있다. <소곡, 가람> ㅅ ㅅ ㅅ

16) <BnF> 왼쪽에 ‘教有惠無定’

17) 學의 오른쪽에 ‘有惠无定’이라는 주석이 있다.

18) <BnF> 왼쪽에 ‘?’

19) ‘ㄷ’ 왼쪽에 ‘馬’와 같은 글자를 썼다가 지운 흔적이 있다. <BnF> ㄷ ㄷ

20) ‘ㄷ’의 자형이 분명하지 않다.

21) 虛驕多聞 不全體力

22) ‘1’은 나중에 오른쪽에 기입한 것이다. <BnF> 義學之徒 글월 뜯썬 學人

- D: 뜯 빙호는 무리 【글썩 뜯썩 빙호는 사르미라】 해 드로몰 속절업시 잘카냥햏야 道力을
올오디 몬햏야 【力은 히미라】
- E: 뜻 배우는 무리 【글의 뜻만 배우는 사람이다】 가 많이 들은 것을 헛되이 잘난체하여 도
력을 온전히 하지 못하여 【力은 힘이다】

- 뜯 빙호는 무리: 지혜는 있고 선정은 없는 사람.

- A: 奇才茂器、皆流爲蒸砂迷客²³⁾ 說食飢夫²⁴⁾
- B: 奇才茂器 | 皆流爲蒸砂迷客이며 說食飢夫 | 로다
- C: 奇<特>ッ 1 才ト {茂}²⁵⁾큰 {器}²⁶⁾그르시[] 皆 {流}흘러가 {砂}몰애 蒸²⁷⁾ 1 迷
<或>ッ 1 客²⁷⁾[] 食 說²⁸⁾ 1 飢 {夫}아비 {爲}드외논 이[]²⁸⁾
- D: 奇特²⁹⁾한 지조와 큰 그릇이 다 흘러가 몰애 떠는 迷惑³⁰⁾한 소니며 밥 니르³¹⁾는 주으³²⁾린 아비
드외³³⁾낫다
- E: 기특한 재주와 큰 그릇이 다 흘러가 모래를 찌는 미혹한 나그네며 밥을 말하는 굶주린
아버지가 되는 것이구나.

- 모래를 찌는 미혹한 나그네, 밥을 말하는 굶주린 아버지: 제대로 된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깨달음을 말하는 수행자들을 비유한 말.

- ‘客’ 뒤의 ‘²⁷⁾’는 맥락상 매우 이상함. 음독구결을 베끼는 과정에서 왼쪽에 있는 ‘²⁷⁾’와
헛갈렸을 가능성?

- 언해문의 ‘드외³³⁾낫다’가 훈독표시구결에서 ‘드외²⁸⁾논 이²⁸⁾로다’로 되어 있는 것은 언해본의 ‘드
외³³⁾낫다’보다 덜 자연스러워 보임.

- A: 首楞嚴王、懸知其然ッ 誕敷秘典ッ 力救倒²⁹⁾妄ッ 淘汰啓迪ッ 1 諄諄之慈、靡
所不至³⁴⁾
- B: 首楞嚴王이懸知其然햏샤 誕敷秘典햏샤 力救倒妄햏샤 淘汰啓迪햏샤 諄諄之慈 | 靡所不至
어시³⁵⁾닐
- C: 首楞嚴王[] {懸}미리 其然ッ 知[] 秘<密>ッ 1 <經>典 誕³⁰⁾ 1 {敷}퍼
[] 倒³¹⁾ 1 {妄}거튼 이를 {力}힘써 救[] 淘³¹⁾汰 啓{迪}내[] 諄諄³²⁾ッ 1
1 {之}慈[] 至<極>³³⁾ {所不}아³⁴⁾ 1 {靡}업거[]³⁴⁾
- C': 啓迪 【啓開也 迪道也教也】³⁵⁾

23) <가람> ㅅ <일사> ㅅ <BnF> ㅅ

24) ‘²⁴⁾’ 앞에 ‘\’가 지워져 있다.

25) 茂의 오른쪽에 ‘義學’이라는 주석이 있다.

26) 器의 왼쪽 아래에 세필의 ‘\’의 흔적이 있고, 오른쪽에는 세필의 ‘ト\’의 흔적이 있다.

27) <BnF> ‘客’ 왼쪽에 ‘니’

28) 皆流-爲蒸=砂=迷=客^五 說-食-飢=夫=

29) <BnF> ‘倒’ 오른쪽에 ‘?’

30) 誕의 오른쪽에 ‘大也’라는 주석이 있다. <BnF> 크게

31) <BnF> 왼쪽 아래 ‘서’

32) 諄의 오른쪽에 ‘詳語之兒’라는 주석이 있다.

33) <BnF> 왼쪽에 ‘-극디’

34) 首楞嚴王 懸-知=其然- 誕=敷=秘-典- 力=救=倒-妄- 淘汰啓迪 諄諄之慈 靡=所不-至-

35) <BnF> 啓者 開之而使悟 迪者 導之而使行

D: 首楞嚴王이 미리 그러흠 들 아랴샤 秘密ᄃᆞᆫ 經典을 크게 펴샤 갖근 거흔 이를 힘써 救ᄃᆞᆫ 샤 이시서 여러 내산 諄諄ᄃᆞᆫ 신 慈 | 【諄諄은 닐어 알외요믈 니기 ᄃᆞᆫ 씨라】 至極디 아 니ᄃᆞᆫ 디 업거시닐

E: 수능엄왕이 미리 그러할 줄 아시고서, 비밀한 경전을 크게 펴시어 뒤집힌 망령된 일을 힘써 구하시고 불필요한 것을 버려 열어 내신 諄諄 【諄諄은 말하여 알게 하는 것을 익 숙하게 하는 것이다.】 하신 자비로움이 지극하지 않은 곳이 없으셨는데

- 首楞嚴王: 수릉엄주 중의 제일가는 주문(왕주[王兄]).

A: 而末世初機 ㄴ 罕能究盡 ㄴ ㄱ |

B: 而末世初機 | 罕能究盡ᄃᆞᆫ도다

C: 而末世 ㄴ ㄱ 36) 初機[ㄴ] 能 {盡}다 {究}알리37) 罕[ㄴ ㄱ | 38)]39)

C': 機 【機는 性이라】

D: 末世엿 첫 機 【機는 性이라】 能히 다 알리 드르도다

E: 말세의 첫 機 【機는 性이다】 를 능히 다 알 사람이 드물구나.

- 末世 ㄴ ㄱ: '-엿'을 세 개의 구결자로 표기. 복합조사 '-엿'은 ①'-에 있는', ②'-의 성 질을 지닌'의 뜻으로 주로 쓰였으며 여기에서는 시간명사 뒤에 쓰였으므로 ①에 가까움.

- '究盡'을 원각사본에서는 '盡 究'의 구성으로 순서를 매긴 반면 BnF본에서는 '究盡' 전체에 언해를 달아 차이를 보인다.

- 드르도다: 드물+도+다.

A: 溫陵環師 ㄴ 40) 一生 ㄴ 掩關 ㄴ ㄱ

B: 溫陵環師 | 一生을 掩關ᄃᆞᆫ고

C: 溫陵環師[ㄴ] 一生[ㄴ] 關<門> {掩}단[ㄴ ㄱ]41)42)

D: 溫陵環師 | 一生을 門 닫고

E: 溫陵環師가 평생을 문 닫고

- 溫陵環師: 온릉(溫陵) 지역(중국 복건성 천주의 지명)의 개원련사(開元蓮寺)에 머무르던 주해 자 계환(戒環) 스님을 높여 부른 말.

A: 與世異好 ㄴ ㄱ 獨陪黃卷聖賢 ㄴ ㄱ 冥搜博訪 ㄴ ㄱ

B: 與世異好ᄃᆞᆫ야 獨陪黃卷聖賢ᄃᆞᆫ야 冥搜博訪ᄃᆞᆫ야

C: {與}世<間> ㄱ 43) {好}즐규미 異[ㄴ ㄱ]44) {獨}ᄃᆞᆫ오샤 黃卷聖賢 ㄴ {陪}되스와[ㄴ ㄱ]

36) <BnF> ㄱ

37) <BnF> '究盡' 왼쪽에 '다 아ㄴ리'

38) <BnF> ㄴ ㄱ |

39) 而末世初機 罕≡能≡究≡盡≡

40) 師의 오른쪽에 'ㄱ 1'을 기입했다가 지운 흔적이 있다.

41) <BnF> 문 닫고

42) 溫陵環師 一生掩關≡

43) 間의 오른쪽에 'ㄱ'을 기입했다가 지운 흔적이 있다.

44) 與世≡異≡好≡ 獨陪黃卷聖賢 冥搜博訪

{冥}기프 搜스 {博}너비 訪<問> ヽ 3 45)

C: 陪黃卷聖賢 【黃卷은 冊을 니르니 狄仁傑이 닐오디 黃卷人 가온디 聖賢과 마조 았노라
 흥니라】 46)

D: 世間과 즐거미 달아 호오사 黃卷 聖賢을 피스와 【黃卷은 冊을 니르니 狄仁傑이 닐오디
黃卷入 가온딧 聖賢과 마조 앓노라⁴⁷⁾ 호니라】 기피 더드므며 너비 무려

E: 세간과 즐기는 것이 달라 혼자 黃卷 聖賢을 모시고 【黃卷은 冊을 말하니, 狄仁傑이 말하기를 “黃卷의 가운데에 있는 聖賢과 마주 대한다.” 하였다.】 깊이 찾으며 넓게 물어

- ‘異好’는 술목구조이므로 그대로 반영하면 ‘즐규를 달이ㅎ야’처럼 번역해야겠으나, 한국어로는 ‘즐규미 달아’와 같은 구성이 더 자연스러움.

－ ‘ㄺ’를 적었다가 지우고 ‘ㅈ’로 바꾼 것을 보면 음독구결이든 훈독표시구결이든 언해문에 맞추려는 경향이 강하게 보임. 한문 원문만 보면 ‘世間과로 ...’로 번역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함.

A: 藉其筌筏⁴⁸⁾、以探如來藏⁴⁹⁾、游徧知海⁵¹⁾、而造乎一切畢竟之地、思與同志、共古齊、因爲是解、

B: 藉其筌筏^{ㅎ야} 以探如來藏^{ㅎ야} 游徧知海^{ㅎ야} 而造乎一切畢竟之地^{ㅎ야} 思與同志와 共코져
 ㅎ야 因爲是解^{ㅎ니}

C: 其 筌筏_시 {藉}브터[ッヅ] {以} 如來藏_시 探[ッヅ] 徧知海_ㄱ {游}노녀[ッヅ]⁵⁶⁾ 而
{乎}一切 {畢竟}只_쥬 {之}地_해 {造}나사가[ッヅ] {與} 志 {同}마튼니[ト] {共}어우러
코져[古齊] 思[ッヅ] 因_{ッヅ} 是 <注>解_ㄷ {爲}뎡마[ッヒ]⁵⁷⁾

C': 筌筏 【筌은 魚捉之器也 午 筏은 떼니 經을 가늘비니라】

D: 筌筏를 버터 【筌은 고기 잡는 그르시오 筏은 떼니 經을 가솔비니라】 如來藏을 더드며
徧知海에 노녀 【徧知는 다 알 씨오 海는 집고 너부믈 가솔비니라】 一切 밋춘 짜해 나
사가 뜯 ㄱ툃니와 어우러 코져 스랑ㅎ야 因ㅎ야 이 注를 밋ㄱ니라

E: 笊箬을 의지하여 【笊은 고기 잡는 그릇이고 箬은 뗏목이니 經을 비유한 것이다.】 如來

45) 諺의 오른쪽에 ‘ッニス’를 기입했다가 지운 흔적이 있다. 왼쪽에 ‘ッ ッ’를 기입했다가 지운 흔적이 있다.

46) <BnF> 黃卷言冊 狄仁傑云 黃卷中聖賢 마초 아노라 ソヒ、

47) 이 이야기의典故는『舊唐書』「狄仁傑傳」에 나온다. “仁傑爲兒時，門人有被害者，吏就詰，衆爭辯對，仁傑誦書不置，吏讓之，答曰：「黃卷中方與聖賢對語，何暇偁俗吏語耶？」”

따라서 ‘마조 앞-’은 ‘對’와 관련되는 단어이고, “尼師檀은 앉는 거시라” <1447 석보상절 6:30a>와 같은 예가 있는 것을 보면 『우리말 큰사전』에서 ‘마조앞노라’를 “‘마조앞다’의 ‘마조앞-’을 달리 적은 꼴”(5044쪽)이라고 풀이한 것은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

48) $\langle BnF \rangle$ 經

49) <BnF> 資領悟?

50) 藏의 왼쪽에 무언가를 기입했다가 지운 흔적이 있다.

51) <BnF> 修

52) 海의 왼쪽에 ‘ㄴ’을 기입했다가 지운 흔적이 있다.

53) 地の 왼쪽에 ‘ㄴ ㄹ’를 기입했다가 지운 흔적이 있다. 오른쪽에도 무언가를 기입했다가 지운 흔적이 있다.

54) ㅁ의 왼쪽에 ‘ㅁ?ㄴ’를 기입했다가 지운 흔적이 있다.

55) 解의 왼쪽에 ‘ッヒ’를 기입했다가 지운 흔적이 있다. 오른쪽에는 ‘ヒ | ?’ <BnF> ッヒ、

56) 난상에 ‘如來藏空寂之體 徧知海虛知之用’이라는 주석이 있다.

57) 藉-其筌筏- 以探如來藏 游-徧知海- 而造-平一切畢竟之地- 思與同-志- 共- 因-爲-是-解-

藏을 찾으며 徧知海에 노닐어 【徧知는 다 아는 것이고 海는 깊고 넓음을 비유한 것이다.】 일체 마친 땅에 나아가 뜻이 같은 이와 어우러지고자 생각하여 인하여 이 주해를 만들었으니

- 筌筏: 통발과 뗏목. 경전을 가리킴.
- 如來藏: “여래의 씨앗을 갈무리하고 있는 창고”라는 의미로써, 미계(迷界)에 있는 진여(眞如). 중생은 본래 깨달을 수 있는 불성의 씨앗을 간직하고 있다는 뜻.
- 徧知海: 깊고 넓게 완전히 아는 것.
- 이 단락의 마지막 부분이 <능엄경언해>에서 구결문에는 ‘因爲是解訖니’로, 언해문에는 ‘뭇 ㄴ니라’로 되어 있어 구결문과 언해문의 불일치를 보여준다.
- 전반적으로 음독구결토는 왼쪽에 기입했다가 지우고 오른쪽에 적은 흔적이 많이 보임. 훈독 표시구결은 그것만으로는 완전한 한국어 번역문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언해본의 언해문과 매우 유사함. 이것만으로 둘 사이의 선후관계를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영향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임.

참고문헌

- 문현수(2016). 「‘-롯’과 ‘-록’의 관계에 대하여」. 『구결연구』 37. 구결학회. 67-100.
- 정은영(2021).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능엄경』의 구결에 대하여: 한글구결을 중심으로」. 『제60회 구결학회 여름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구결학회. 31-47.
- 鄭在永·安大鉉(2018). 「漢文読方と口訣」. 野間秀樹 編, 『韓国語教育論講座 第3巻』. 東京: くろしお出版. 335-370.
- 張景俊(2021). 「韓国の漢文訓読 (釈読)」. 金文京 編, 『漢字を使った文化はどう広がっていたのか: 東アジアの漢字漢文文化圏』(東アジア文化講座2). 東京: 文学通信. 143-156.
- Whitman, J.(2011). “The Ubiquity of Gloss.” *Scripta* 3. Hunminjeongeum Society. 95-121.